

취업한 여성결혼이민자들의 직업기초능력에 관한 연구

박신영* · 이병준†
(부산대학교)

A Study on the Key Competencies of The married female immigrants at work

Sin-Young PARK* · Byung-Jun, YI†
(Pusan National University)

Abstract

On this study, the survey was conducted for the married female immigrants at work living in the district of Pusan, Changwon and Gimhae in order to analyze the level of the key competencies based on the differences of their ages, their final educational background, the period of their staying in Korea, their Korean language competence, jobs and the employment status in their native countries. As the result of the analysis, firstly, depending on their Korean language competence and jobs, there were meaningful differences among the groups in the aspects of the nine key competencies including communication, numeracy, problem solving, self-management and development, resource use, human relationship, information, technology, and organization skills, with the statistical significance level of .05. Secondly, depending on their final educational background, there were meaningful differences among the groups in the other aspects of eight key competencies except problem solving, with the statistical significance level of .05. Thirdly, depending on the employment status in their native countries, there were meaningful differences among the groups in the aspects of the five competencies including communication, numeracy, problem solving, resource use and organizational skills with the statistical significance level of 0.05. Fourthly, depending on the period of staying in Korea, there is difference only in the aspect of communication. Fifthly, depending on their ages, there were no meaningful differences among the groups.

Key words : The married female immigrants at work, Key competencies, Labor market.

I. 서론

한국사회에서 이주의 여성화 현상은 1980년대 부터 특정 종교단체를 통한 한국남성과 일본여성의 국제결혼을 시작으로 1990년대 중반부터 중국 조선족 여성의 결혼이주가 본격화되었다. 그리고 수많은 결혼중개업체들의 활동으로 2002년 이후 부터는 한국보다 경제적으로 낙후된 동남아시아 저개발 출신의 여성결혼이민자들이 대거 유입되고 있다. 안전행정부(2012)에 따르면 여성결혼이

민자 수는 19만 명을 넘어선 것으로 추산되고 있다. 최근에 유입된 여성결혼이민자 대부분은 연령과 학력이 낮고(김승권 외, 2010), 한류 영향으로 코리안 드림과 가족생계 등의 이유로 국제결혼을 선택하였으나, 사전에 국제결혼에 대한 충분한 준비 및 정보부족으로 한국 사회적응에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다.

이들 상당수가 한국사회에서 사회경제적으로 지위가 낮고 나이가 많은 남성과 결혼한 관계로

* Lead author : 010-9848-8338, withme999@hanmail.net

† Corresponding author : 010-4177-2632, green957@naver.com

차상위계층 이하에 속하는 가정이 많다. 또한 부부 간에 평균 10년 이상의 나이 차이로 말미암아 향후 남편의 노동시장 은퇴나 실직이 발생할 경우 가계 내 경제책임은 여성결혼이민자들의 몫이 될 가능성이 크다. 이러한 이유로 여성결혼이민자들은 높은 취업욕구를 가지게 되지만(설동훈 외, 2005; 권미경, 2007; 김승권, 2010; 김병숙 외, 2010; 박강구, 2012), 원활하지 못한 한국어 의사소통능력, 한국 사회문화의 이해부족, 노동시장에서 요구하는 취업역량 부족, 본국과 다른 노동구조, 다양한 직업선택의 기회부재, 편견과 차별, 본국 학위나 자격증 불인정, 자녀양육 문제 등으로 직업세계 진입이 쉽지 않다.

인간에게 있어 직업은 생계수단, 자아실현, 정체성 확립, 그리고 사회적 관계망 형성 등의 의미를 가지게 된다(문소정 외, 2009). 특히 한국사회로 결혼이주해온 여성결혼이민자들에게 있어 일이란 경제적 어려움과 사회적 편견 및 차별을 극복하게 하고, 자신감 회복과 자아존중감 고취에 도움을 주게 되며, 가족과의 관계에서 아내로서, 며느리로서, 엄마로서 보다 높은 지위를 부여하게 한다.

이러한 현실을 고려해볼 때, 여성결혼이민자들이 한국이라는 낯설고 역동적인 환경에 유연하게 대처하면서 원활하게 정착하고, 생계유지 및 경제적 자립을 도모하여 사회경제적 지위를 향상시키고 동시에 당당한 사회구성원으로 자리매김하기 위해서는 직업기초능력 강화와 수준별 맞춤형 직업교육훈련 참여가 시급한 상황이다. 무엇보다 직업기초능력은 국민공통 기초능력으로써 인간이 삶을 살아가면서 직업생활을 영위하게 위해 대부분의 직종에서 공통적으로 필요한 지식·기술·태도·경험 등을 포함하는 능력을 의미한다. 따라서 개인이 보유하고 있는 인적자본인 직업기초능력의 높고 낮음은 어떤 직장에 취업하느냐를 결정하는 주요 요소로 작용하게 되므로(김안국, 2007), 취업을 희망하는 여성결혼이민자들은 삶과 학습이 연계되는 평생학습을 통해 지속적으로 직

업기초능력을 유지 및 제고시키는 노력이 필요하다.

또한 여성결혼이민자들은 우리사회의 저출산·고령화에 따른 경제활동인구 감소를 해소할 수 있는 주요한 인적자원으로 주목받고 있다. 현재 다문화가족지원센터, 여성새로일하기센터 등을 중심으로 한 평생교육기관들은 여성결혼이민자들의 직업훈련 및 취업교육, 취업알선 등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 그러나 여성결혼이민자들의 평생교육 참여율은 저조한 편이며, 직업훈련 및 교육 프로그램도 일회성 행사나 단기적 운영 등으로 그 한계를 드러내고 있다(심인선, 2010). 따라서 정부차원에서는 장기적인 관점에서 여성결혼이민자들의 인적자원을 개발하고 효율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내실 있는 정책을 마련하고, 일자리를 창출할 수 있도록 심도 있는 논의와 지속적인 고민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최근 여성결혼이민자들의 급속한 수적 증가로 인해 이들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점차적으로 높아지고 있는 추세다. 그 일환으로 여성결혼이민자들의 취업을 다룬 연구들이 정책연구(고혜원 외 2010; 양인숙 외, 2010; 최승호 외 2010; 장서영 외, 2009; 김영하 외, 2008)와 학술연구(서승재, 2012; 양경은, 2011; 홍수남 외, 2011; 김시영, 2010; 심인선, 2010) 차원에서 진행되고 있다. 하지만 이들 대부분은 여성결혼이민자들의 취업실태 조사나 취업결정요인 분석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기존 선행연구들에서 알 수 있듯이 많은 여성결혼이민자들이 실질적으로 취업을 희망하고 있으나 취업가능성이 낮은 현실을 비추어 볼 때, 현재 한국사회에서 취업한 여성결혼이민자들은 취업결정의 주요 요소로 작용하는 직업기초능력을 어느 정도 가지고 있는지를 살펴보는 것은 중요한 의의를 가질 것으로 본다.

따라서 본 연구는 취업한 여성결혼이민자들을 대상으로 연령별, 한국거주 기간별, 최종학력별, 한국어실력별, 직업별, 본국 직업유무별에 따라 직업기초능력에 어떠한 차이가 있는지를 탐색함

에 그 목적이 있다. 연구목적 달성을 위해 첫째, 취업한 여성결혼이민자들의 직업기초능력별 수준은 어떠한지 둘째, 취업한 여성결혼이민자들의 연령별, 한국거주 기간별, 최종학력별, 한국어실력별, 직업별, 본국 직업유무별에 따른 직업기초능력의 차이는 어떠한지를 연구문제로 설정하였다. 그리고 부산·창원·김해 3개 지역의 동에 거주하고 있는 취업한 여성결혼이민자를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한 후, 146부를 통계처리하여 연구 결과를 도출하였다.

II. 이론적 배경

1. 직업기초능력: 개념 및 영역

인간은 자신의 삶을 살아가면서 직업생활 영역을 위해 여러 가지 직업능력으로 직업기초능력

직무수행능력이 요구되는데, 특히 직업기초능력은 수준의 관점에서 기초에 해당되는 능력이 아니라 기본이 되고 공통적인 의미의 능력이라고 할 수 있다(정철영 외, 1998). 이무근(1997)은 직업기초능력을 “대부분의 직종에서 직무를 수행하는 데 있어서 기본적으로 필요한 능력”으로, 정철영(1998)은 “직종이나 직위에 상관없이 대부분의 직종에서 직무를 성공적으로 수행하는 데 공통적으로 필요한 지식·기술·태도·경험 등을 포함하는 능력”으로 정의하고 있다. 이러한 직업기초능력에 대한 하위영역을 정철영 외(1998)는 의사소통능력, 수리능력, 문제해결능력, 자기관리 및 개발 능력, 자원활용능력, 대인관계능력, 정보능력, 기술능력, 조직이해능력으로 구분하여 9개 영역, 57개 하위요소를 제시하고 있다 <Table 1> .

<Table 1> Sub-components of the domain of key competencies

Domain	Sub-components of key competencies
Competencies of communication	· Reading · Writing · Listening · Speaking · Non-verbal expression · Foreign Language Reading
Competencies of numeracy	· Understanding of the four fundamental arithmetic operations · Calculation of Probability and Statistics · Analyzing diagrams · Drawing diagrams
Competencies of problem solving	· Thinking ability : Creative thinking, Logical thinking, Critical thinking · Problem recognition · Alternative plan selection · Alternative plan application · Alternative plan evaluation
Competencies of self-management & development	· Self-management : Self-esteem, Driving force, Health management, Independent mind, Responsibility, Motive of accomplishment, Sincerity, Positive attitude, Workplace etiquette · Career development : Self-understanding, Self-development · Value and attitude about the job : Law abiding liability, Professional ethics, Sense of safety, Service spirit, Artisan spirit, Sense of vocation, Sense of Lifelong profession
Competencies of resource use	· Resource confirmation · Resource organization · Resource planning · Resource allocation
Competencies of human relationship	· Cooperation · Leadership · Conflict management · Negotiation · Customer service
Competencies of information	· Information collection · Information analysis · Information organization · Information management · Information application · Computer skill
competencies of technology	· Technology understanding · Technology selection · Technology application
Competencies of organization skills	· International mindset · System understanding · Business management understanding · Task understanding

Source : Jung chulyoung and the rest(1998), Analysis of The National Common Basic Curriculum about Key competencies, Korea Research Institute for Vocational Education and Training

전통적으로 언어능력과 수리능력은 성인능력의 핵심요소로 각 나라에서도 사회경제 발전의 중요 요인으로 인식하고 있다(임언 외, 2004). 괜찮은 일자리 취업에 직업기초능력이 영향을 미치므로 정규교육 시기에 직업기초능력을 갖추지 못한 사람들은 지속적인 평생학습을 통해 직업기초능력 획득을 위한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김안국, 2007). 이러한 직업기초능력은 학력이 높을수록, 지식 집약적 직업에 종사할수록, 직장과 일상생활에서 기초능력을 많이 활용할수록 높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으며, 20대에 정점을 이루다가 40대 중반에 평균 이하로 떨어지는 연령효과를 보이고 있다(임언 외, 2006). 이상의 검토를 통해 본 연구에서는 여성결혼이민자들의 직업기초능력 정도를 탐색하고자 정철영(1998)의 직업기초능력 영역에 기초하여 연구를 실시하였다.

2. 여성결혼이민자의 직업능력개발 현황

여성결혼이민자들이 본국과 다른 한국 사회문화에 적응하고, 직업능력을 개발하여 취업하기까지는 갈 길이 멀기만 하다. 이규용 외(2011)는 여성결혼이민자들의 취업 장벽으로 자녀양육, 취업에 대한 남편의 부정적 시각, 노동시장 진입의 한계, 직업훈련의 낮은 성과 등을 지적하고 있다. 이들이 어렵게 취업했다하더라도 언어소통, 외국출신에 대한 편견과 차별, 고된 일, 긴 노동시간, 낮은 임금, 자녀양육 등으로 힘들어 하는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김승권 외, 2010). 여성결혼이민자들은 주로 서비스종사자, 단순노무자, 전문가 및 관련종사자 순으로 종사하고 있으며, 출신국의 언어 및 문화자원을 활용하는 원어민강사·다문화강사·이중언어강사·통번역사 등이 전문직 종사자로 분류되고 있으나 이들의 낮은 지위는 여성결혼이민자들의 낮은 소득으로 이어지고 있다(양인숙 외, 2010). 또한 여성결혼이민자들이 미용, 네일아트, 조리사 등의 직업교육훈련과정을 수강해도 육아문제, 학원비 부담 등으로 중도탈

락 사례가 발생하고 있으며, 자격증을 취득하고자 해도 필기시험시 전문용어 이해의 어려움으로 이론시험을 통과하지 못하는 경우가 발생하고 있다(최승호 외, 2010).

다문화정책은 한국사회의 새로운 구성원으로 자리 잡아 나가는 결혼이민자 및 이주민, 난민들의 문화적 차이에 따른 다양성을 존중하고 사회적 통합을 이루는 것이 중요하다(김오남, 2008). 그러나 우리나라의 다문화정책은 다문화주의에 대한 충분한 이론적 논쟁이나 사회적 논의를 거쳐 도출되었다기보다는 급속한 다문화사회 이행과정 속에서 짧은 기간 내에 수립된 것이 적지 않다(서중남, 2010). 그 한 예로 다문화인들에 대한 각종 지원의 근거가 되는 「다문화가족지원법」이 2008년에 제정된 이후, 이 법에 근거하여 당시 보건복지가족부는 다문화가족지원에 필요한 전문인력과 시설을 갖춘 다문화가족지원센터를 지정하였고, 국가 및 지자체는 여성결혼이민자들에게 생활에 필요한 기본적인 정보제공과 사회적응교육 및 직업교육훈련 등을 받을 수 있도록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게 되었다. 다문화가족지원센터의 여성결혼이민자 취업연계 지원 사업은 맞춤형 취업능력향상 프로그램운영, 사회활동 기회 제공을 통한 한국사회적응과 자존감 향상, 안정적인 소득창출을 통한 자립능력 강화를 그 목적으로 하고 있다.

또한 여성새로일하기센터는 2008년에 경력단절 여성등의 경제활동촉진법에 근거하여 여성부와 고용노동부가 공동으로 추진한 것으로 경력단절된 여성의 취업지원을 전담하는 윈스톱 종합취업지원기관이다. 특히 여성결혼이민자를 대상으로 운영되는 직업교육훈련은 피부미용 및 네일아트, 의류 및 홈패션수선, 제과제빵, 비즈공예, 원어민강사 및 다문화강사 양성 등이 주류를 이루고 있다. 그러나 여성결혼이민자들을 대상으로 하는 직업기술교육은 비교적 단기간에 쉽게 배울 수 있고 취업도 용이하다는 측면에서 실시하고 있으나 이들이 살아오면서 축적되어온 다양한 역량과

독특한 경험을 바탕으로 한 것이 아니어서 적극적인 참여유도에는 한계가 있으며, 실령 기술교육을 받았다하더라도 실제 취업으로 연계되는 데에 어려움이 있다(김이선 외, 2006).

이상에서 보았듯이 2008년 이후 다문화가족지원센터와 여성새로일하기센터가 설립되면서 최근에 이주해온 여성결혼이민자들은 이전의 여성결혼이민자들보다 공신력 있는 기관에서 한국어교육, 한국문화적응교육, 직업훈련 및 취업교육, 취업알선 등의 다양한 서비스 지원을 통해 안정적인 정착과 취업역량 강화에 유리한 혜택을 제공받고 있다. 그러나 이들 기관들에서의 운영프로그램들이 다소 중복되는 경향이 있으므로 기관의 설립취지에 맞는 정체성을 확고히 하고 차별화 전략을 구사함으로써 여성결혼이민자들의 인적자원개발에 기여해야 할 것으로 본다.

3. 선행연구 분석

선행연구에서는 여성결혼이민자들의 취업결정요인 및 취업실태에 대해 살펴보고자 한다. 여성결혼이민자들이 취업을 결정함에 있어 자녀, 연령, 취업경험, 한국어거주기간 순으로 영향을 받게 된다(김옥엽, 2012). 이들의 교육수준, 언어구사능력, 한국국적 취득은 취업에 정적인 영향을 주며, 연령이 높을수록 부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양경은, 2011). 또한 양인숙 외(2010)도 여성결혼이민자들이 소유하고 있는 인적자본인 연령, 학력, 한국어 능력, 본국 취업경험, 한국에서의 직업훈련 경험이 취업과 소득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고 언급하고 있다. 아울러 남편학력이 대졸이상의 고학력일수록 여성결혼이민자의 취업확률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으며(이은희·이은미, 2012), 여성결혼이민자가 최초로 취업하기까지 평균 3~4년이 걸리는 것으로 나타났다(김시영, 2010). 여성결혼이민자들의 학력도 주요 인적자본으로 작용하고 있는데, 북미·호주·서유럽(91.1%), 몽골(61.5%), 일본(59.3%), 필

리핀(57.3%)은 대졸 이상 학력 소지자가 많은 반면 캄보디아(66.4%), 베트남(61.9%), 중국 한족(36.9%), 중국 조선족(34.2%)은 중학교 이하의 학력 소지자가 많은 것으로 확인되고 있다(김승권 외, 2010).

무엇보다 여성결혼이민자들의 한국어 실력은 취업의 중요 관건으로 작용하게 된다. 그러나 이들의 한국어 능력 중에서 수용어휘력은 4세~4세 5개월 수준, 구문미 이해력은 5세 수준, 표현어휘력은 5세 수준으로 매우 낮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최현옥·황보명, 2009). 이규용 외(2011)도 여성결혼이민자들의 한국어 실력이 높을수록, 취업교육에 참여한 경험이 있을수록 시장노동 참여 확률은 증가한다고 언급하면서 고용안정을 위해 한국어교육과 취업교육을 통해 직업능력을 개발해야 하고, 이들의 다문화역량을 발휘할 수 있는 일자리 창출이 필요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여성결혼이민자들의 직업교육훈련 참여는 실질적으로 저조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으나, 직업교육훈련 참여의향(70%)은 높은 것으로 나타났으며(김승권 외, 2010; 이규용 외, 2011) 주로 어학, 컴퓨터 및 정보통신, 음식 순으로 직업훈련 참여 의사를 밝히고 있다. 이상의 검토를 토대로 본 연구에서는 취업한 여성결혼이민자들의 개인적 특성 중에서 연령, 최종학력, 한국어거주기간, 한국어 실력, 직업, 본국 직업유무를 변인으로 선정하여 이들의 직업기초능력 정도를 탐색하고자 한다.

III. 연구 방법

1. 연구대상 및 연구절차

본 연구는 부산·창원·김해 지역의 행정구역동에 거주하고, 한국어를 어느 정도 읽고 쓰고 이해할 수 있는 취업한 여성결혼이민자들을 대상으로 직업기초능력 실태를 살펴보고자 한국어로 설문지를 제작하여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다. 설문

지는 2012년 12월에 예비조사를 실시하여 수정 및 보완하였으며, 설문조사는 2013년 1~2월에 걸쳐 진행하였다. 자료수집 방법은 눈덩이 표집을 사용하였는데, 이는 여성결혼이민자들의 취업 현황 자료가 아직 미비하고, 취업한 여성결혼이민자들이 신분노출을 꺼리고 경향이 있어 접근성에 다소 어려움이 있었다. 따라서 연구자와 친분이 있는 여성결혼이민자들 또는 협조적인 기관 담당자들의 도움으로 연구대상자를 소개받고, 소개받은 이들이 주변의 친구 및 지인을 소개해 주는 방식으로 자료를 수집하였다. 설문지 배부 및 회수는 사업장방문, 가정방문, 우편발송, 이메일 발송 등으로 이루어졌으며, 회수된 146개 설문지 모두는 통계분석에 사용되었다.

2. 조사도구 및 자료처리

설문지 문항은 이종성·정향진(2002)이 정철영 외(1998)의 직업기초능력에 관한 국민공통기본교

육과정 분석연구에서 추출된 직업기초능력 9개 영역의 57개 문항을 토대로 제작한 직업기초능력 진단도구를 연구대상자의 다양한 문화적 배경 등을 고려하여 전문가집단의 협의를 통해 9개 영역(의사소통능력, 수리능력, 문제해결능력, 자기관리 및 개발능력, 자원활용능력, 대인관계능력, 정보능력, 기술능력 및 조직이해능력)의 44개 문항으로 연구에 적합하도록 재구성하였다 <Table 2>. 각 문항은 5점 Likert 척도로 ‘매우 낮다’ 1점에서 ‘매우 높다’ 5점으로 점수를 부여하여 점수가 높을수록 직업기초능력이 높음을 의미한다. 설문지 문항은 한국어로 작성된 관계로 연구대상자인 여성결혼이민자들이 다소 이해하기 어렵다고 생각되어 예비조사 연구를 통해 문항을 수정 및 보완하였으며, 이를 교육학 교수와 여성결혼이민자들과 함께 생활하는 현장전문가에게 내용타당도를 검증받았다.

<Table 2> The composition of survey questions

Domain		Question properties		Number of questions
Individual Traits		· Age · Korean ability	· Period of staying in Korea · Current job	6
key competencies	Competencies of communication	· Reading · Non-verbal expression	· Writing · Listening · Foreign Language Reading	6
	Competencies of numeracy	· Understanding of the four fundamental arithmetic operations · Calculation of Probability and Statistics · Analyzing diagrams · Drawing diagrams		4
	Competencies of problem solving	· Creative thinking · Logical thinking · Alternative plan selection & application · Critical thinking		4
	Competencies of self-management & development	· Self-management : Self-esteem, Driving force, Health management, Independent mind, Responsibility, Motive of accomplishment, Sincerity, Positive attitude, Workplace etiquette · Career development : Self-understanding, Self-development		11
	Competencies of resource use	· Resource confirmation · Resource planning	· Resource organization · Resource allocation	4
	Competencies of human relationship	· Cooperation · Negotiation	· Leadership · Customer service · Conflict management	5
	Competencies of information	· Information collection · Information application · Information analysis · Computer skill		4
	competencies of technology	· Technology understanding · Technology selection & application		2
	Competencies of organization skills	· International mindset · Business management understanding	· System understanding · Task understanding	4
Total				50

취업한 여성결혼이민자의 직업기초능력 척도에 대한 신뢰도는 문항내적 일관성 계수인 Cronbach's α 를 구하였으며, 그 결과는 <Table 3> 과 같다. 회수된 설문지는 Windows SPSS 20.0 통계프로그램을 활용하여 자료를 분석하였다. 응답자의 개인적 특성은 빈도분석과 백분율을, 응답자의 직업기초능력 영역별 수준은 평균과 표준편차를, 응답자의 개인적 특성(연령, 한국거주기간, 최종학력, 한국어실력, 직업, 본국 직업유무)에 따른 직업기초능력 차이는 일원변량분석(ANOVA)과 T 검정으로 분석하였고, 이중 일원변량분석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한 항목에 대해서는 Scheffe 사후검정을 실시하였다.

이 65명(44.5%), '10년 이상'이 41명(28.1%), '2~5년 미만'이 25명(17.1%)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최종학력은 '고졸'이 63명(43.2%), '대졸 이상'이 62명(42.5%), '중졸 이하'가 21명(14.4%) 순으로, 한국어 실력은 '중'이 83명(56.8%), '상'이 51명(34.9%), '하'가 12명(8.2%)으로 나타났다. 현 직업은 '교육·사무종사자'가 91명(62.3%)로 가장 많았으며, 본국에서의 직업유무는 '있었다'가 107명(73.3%)로 절반 이상을 차지하였다.

IV. 연구 결과

1. 개인적 특성

직업기초능력에 대한 자기평가 설문조사에 참여한 취업한 여성결혼이민자 146명의 개인적 특성은 <Table 4> 와 같다. 응답자 연령은 '30~39세 이하'이 78명(53.4%), '29세 이하'이 36명(24.6%) 순으로, 한국거주 기간은 '5~10년 미만'

<Table 3> Reliability coefficient of Key competencies measure

Domain of Key Competencies	Cornbach's α
Competencies of communication	.755
Competencies of numeracy	.882
Competencies of problem solving	.859
Competencies of self-management & development	.907
Competencies of resource use	.915
Competencies of human relationship	.855
Competencies of information	.934
competencies of technology	.892
Competencies of organization skills	.882

<Table 4> Individual Trait

Classification	N	%	
Age	29 and under	36	24.6
	between 30 and 39	78	53.4
	40 and over	32	22.0
	Total	146	100.0
The period of staying in Korea	under 2 years	15	10.3
	2 years~under 5 years	25	17.1
	5 years~under 10 years	65	44.5
	10 years and over	41	28.1
	Total	146	100.0
Final educational background	Middle School and under	21	14.4
	High School	63	43.2
	University and over	62	42.5
	Total	146	100.0

Korean language competence	Low	12	8.2
	Middle	83	56.8
	High	51	34.9
	Total	146	100.0
Job	Service · Sales	33	22.6
	Education · Office job	91	62.3
	Others(simple laborers)	22	15.1
	Total	146	100.0
The employment status in native country	Yes	107	73.3
	No	39	26.7
	Total	146	100.0

2. 직업기초능력 영역별 수준

취업한 여성결혼이민자들이 가지고 있는 직업기초능력에 대한 영역별 수준은 <Table 5>와 같다. 직업기초능력의 각 영역별 평균을 보면 자기관리 및 개발능력이 3.89점으로 가장 높았고, 대인관계능력이 3.63점, 조직이해능력이 3.55점 등의 순으로 나타났으며, 정보능력이 3.33점, 의사소통능력이 3.36점, 문제해결능력 3.38점 순으로 낮게 나타났다. 그리고 직업기초능력에 대한 전체 평균은 3.50점으로 보통으로 나타났다.

<Table 5> Level by Domain of Key competencies

Domain of Key Competencies	N	SD
Competencies of communication	3.36	.65
Competencies of numeracy	3.39	.91
Competencies of problem solving	3.38	.67
Competencies of self-management & development	3.89	.58
Competencies of resource use	3.44	.76
Competencies of human relationship	3.63	.62
Competencies of information	3.33	.89
Competencies of technology	3.51	.75
Competencies of organization skills	3.55	.65
Total	3.50	.72

3. 개인적 특성에 따른 직업기초능력

가. 연령에 따른 직업기초능력 차이

취업한 여성결혼이민자들의 직업기초능력이 연령에 따라 차이가 있는지를 분석한 결과는 <Table 6>과 같다. 연령에 따른 여성결혼이민자들의 직업기초능력 차이는 9개 영역 의사소통능

력, 수리능력, 문제해결능력, 자기관리 및 개발능력, 자원활용능력, 대인관계능력, 정보능력, 기술능력, 조직이해능력 모두에서 유의미한 차이가 없었다.

<Table 6> Difference of Key competencies by age

Domain	Age	N	Mean	SD	F(p)	Scheffe
Competencies of communication	29 and under(a)	36	3.21	.66	2.845 (.061)	-
	between 30 and 39(b)	78	3.48	.65		
	40 and over(c)	32	3.24	.63		
	Total	146	3.36	.65		
Competencies of numeracy	29 and under(a)	36	3.19	.99	1.225 (.297)	-
	between 30 and 39(b)	78	3.44	.90		
	40 and over(c)	32	3.49	.85		
	Total	146	3.39	.91		

취업한 여성결혼이민자들의 직업기초능력에 관한 연구

Competencies of problem solving	29 and under(a)	36	3.30	.66	.596 (.552)	-
	between 30 and 39(b)	78	3.43	.66		
	40 and over(c)	32	3.33	.71		
	Total	146	3.38	.67		
Competencies of self-management & development	29 and under(a)	36	3.93	.54	.999 (.371)	-
	between 30 and 39(b)	78	3.92	.59		
	40 and over(c)	32	3.76	.61		
	Total	146	3.89	.58		
Competencies of resource use	29 and under(a)	36	3.34	.81	.785 (.458)	-
	between 30 and 39(b)	78	3.51	.75		
	40 and over(c)	32	3.37	.74		
	Total	146	3.44	.76		
Competencies of human relationship	29 and under(a)	36	3.59	.67	.202 (.817)	-
	between 30 and 39	78	3.66	.61		
	40 and over	32	3.61	.61		
	Total	146	3.63	.62		
Competencies of information	29 and under(a)	36	3.41	.91	.779 (.461)	-
	between 30 and 39(b)	78	3.36	.91		
	40 and over(c)	32	3.16	.82		
	Total	146	3.33	.89		
Competencies of technology	29 and under(a)	36	3.49	.77	1.263 (.286)	-
	between 30 and 39(b)	78	3.59	.77		
	40 and over(c)	32	3.34	.65		
	Total	146	3.51	.75		
Competencies of organization skills	29 and under(a)	36	3.57	.51	.517 (.597)	-
	between 30 and 39(b)	78	3.58	.72		
	40 and over(c)	32	3.45	.60		
	Total	146	3.55	.65		

*p < .05

나. 한국거주기간에 따른 직업기초능력 차이
취업한 여성결혼이민자들의 직업기초능력이 한국거주 기간에 따라 차이가 있는지를 분석한 결과는 <Table 7> 과 같다. 의사소통능력 영역 1개에서만 ‘2~5년 미만’ 집단과 ‘5~10년 미만’ 집단

간에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를 보이는 반면 (F=3.364, p<.05), 나머지 8개 영역인 수리능력, 문제해결능력, 자기관리 및 개발능력, 자원활용능력, 대인관계능력, 정보능력, 기술능력, 조직이해능력에서는 유의미한 차이가 없었다.

<Table 7> Difference of Key competencies by the period of staying in Korea

Domain	The period of staying in Korea	N	Mean	SD	F(p)	Scheffe
Competencies of communication	under 2 years(a)	15	3.40	.66	3.364* (.020)	b < c
	2 years ~ under 5 years(b)	25	3.00	.66		
	5 years ~ under 10 years(c)	65	3.45	.56		
	10 years and over(d)	41	3.43	.73		
	Total	146	3.36	.65		

Competencies of numeracy	under 2 years(a)	15	3.37	.98	1.484 (.222)	-
	2 years~under 5 years(b)	25	3.05	1.13		
	5 years~under 10 years(c)	65	3.47	.80		
	10 years and over(d)	41	3.48	.89		
	Total	146	3.39	.91		
Competencies of problem solving	under 2 years(a)	15	3.38	.69	1.136 (.337)	-
	2 years~under 5 years(b)	25	3.22	.73		
	5 years~under 10 years(c)	65	3.48	.69		
	10 years and over(d)	41	3.30	.60		
	Total	146	3.38	.67		
Competencies of self-management & development	under 2 years(a)	15	3.92	.58	.652 (.583)	-
	2 years~under 5 years(b)	25	3.79	.52		
	5 years~under 10 years(c)	65	3.95	.56		
	10 years and over(d)	41	3.82	.67		
	Total	146	3.88	.58		
Competencies of resource use	under 2 years(a)	15	3.38	.73	1.800 (.150)	-
	2 years~under 5 years(b)	25	3.15	.86		
	5 years~under 10 years(c)	65	3.56	.72		
	10 years and over(d)	41	3.44	.74		
	Total	146	3.44	.76		
Competencies of human relationship	under 2 years(a)	15	3.61	.61	.397 (.755)	-
	2 years~under 5 years(b)	25	3.53	.71		
	5 years~under 10 years(c)	65	3.69	.57		
	10 years and over(d)	41	3.62	.67		
	Total	146	3.63	.62		
Competencies of information	under 2 years(a)	15	3.48	1.02	1.125 (.341)	-
	2 years~under 5 years(b)	25	3.04	1.07		
	5 years~under 10 years(c)	65	3.39	.82		
	10 years and over(d)	41	3.34	.83		
	Total	146	3.33	.89		
Competencies of technology	under 2 years(a)	15	3.67	.86	2.095 (.104)	-
	2 years~under 5 years(b)	25	3.24	.79		
	5 years~under 10 years(c)	65	3.63	.67		
	10 years and over(d)	41	3.43	.75		
	Total	146	3.51	.75		
Competencies of organization skills	under 2 years(a)	15	3.53	.62	1.462 (.228)	-
	2 years~under 5 years(b)	25	3.37	.60		
	5 years~under 10 years(c)	65	3.66	.61		
	10 years and over(d)	41	3.48	.72		
	Total	146	3.55	.65		

*p <.05

다. 최종학력에 따른 직업기초능력 차이 학력에 따라 차이가 있는지를 분석한 결과를 보
취업한 여성결혼이민자의 직업기초능력이 최종 면 <Table 8> 과 같다. 문제해결능력을 제외한 8

개 영역 모두에서 통계적으로 유의수준 .05에서 집단 간에 유의미한 차이가 있었다.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확인된 요인에 대한 Scheffe 사후 검증을 실시한 결과, 의사소통능력에서는 ‘대졸 이상’이 ‘중졸 이하’보다 의사소통능력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F=3.900, p<.05). 수리능력은 ‘고졸’과 ‘대졸 이상’ 집단이 ‘중졸 이하’ 집단보다 높았으며, 자기관리 및 개발능력은 ‘대졸 이상’ 집단이 ‘중졸 이하’ 집단보다 높았다. 또한 자원활

용능력, 대인관계능력, 정보능력은 ‘고졸’과 ‘대졸 이상’ 집단이 ‘중졸 이하’ 집단보다 높았으며, 기술능력은 ‘대졸 이상’ 집단이 ‘중졸 이하’ 집단보다 높았다. 마지막으로 조직이해능력은 ‘고졸’과 ‘대졸 이상’ 집단이 ‘중졸 이하’ 집단보다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여성결혼이민자들의 최종학력이 높을수록 직업기초능력이 높음을 알 수 있었다.

<Table 8> Difference of Key competencies by final educational background

Domain	Final educational background	N	Mean	SD	F(p)	Scheffe
Competencies of communication	Middle School and under(a)	21	3.09	.74	3.900* (.022)	a < c
	High School(b)	63	3.30	.59		
	University and over(c)	62	3.51	.66		
	Total	146	3.36	.65		
Competencies of numeracy	Middle School and under(a)	21	2.67	.75	12.482* (.000)	a < b, c
	High School(b)	63	3.31	.86		
	University and over(c)	62	3.71	.86		
	Total	146	3.39	.91		
Competencies of problem solving	Middle School and under(a)	21	3.14	.67	1.679 (.190)	-
	High School(b)	63	3.38	.64		
	University and over(c)	62	3.45	.69		
	Total	146	3.38	.67		
Competencies of self-management & development	Middle School and under(a)	21	3.57	.43	3.679* (.028)	a < c
	High School(b)	63	3.93	.57		
	University and over(c)	62	3.95	.61		
	Total	146	3.88	.58		
Competencies of resource use	Middle School and under(a)	21	2.90	.74	7.972* (.001)	a < b, c
	High School(b)	63	3.42	.67		
	University and over(c)	62	3.63	.77		
	Total	146	3.44	.76		
Competencies of human relationship	Middle School and under(a)	21	3.17	.70	7.714* (.001)	a < b, c
	High School(b)	63	3.67	.57		
	University and over(c)	62	3.75	.58		
	Total	146	3.63	.62		
Competencies of information	Middle School and under(a)	21	2.68	.84	8.572* (.000)	a < b, c
	High School(b)	63	3.31	.87		
	University and over(c)	62	3.56	.83		
	Total	146	3.33	.89		
Competencies of technology	Middle School and under(a)	21	3.10	.86	4.467* (.013)	a < c
	High School(b)	63	3.52	.67		
	University and over(c)	62	3.65	.74		
	Total	146	3.51	.75		

Competencies of organization skills	Middle School and under(a)	21	3.13	.57	6.391* (.002)	a < b, c
	High School(b)	63	3.54	.65		
	University and over(c)	62	3.69	.61		
	Total	146	3.55	.65		

*p < .05

라. 한국어 실력에 따른 직업기초능력 차이
 취업한 여성결혼이민자의 직업기초능력이 한국어 실력에 따라 차이가 있는지를 분석한 결과는 <Table 9> 와 같다. 9개 영역 모두에서 통계적으로 유의수준 .05에서 집단 간에 유의미한 차이가 있었다.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확인된 요인에 대한 Scheffe 사후검증을 실시한 결과, 의사소통능력에서는 한국어 실력이 ‘중’과 ‘상’인 집단이 ‘하’인 집단보다 높았으며, 한국어 실력 ‘상’인 집단이 ‘중’인 집단보다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F=60.592, p<.05). 수리능력은 한국어 실력이 ‘상’인 집단이 ‘중’과 ‘하’에 속하는 집단보다 높았다. 문제해결능력, 자기관리 및 개발능력, 자원활용능력, 대인관계능력, 정보능력, 기술능력, 조직이해능력에서는 ‘상’ 집단이 ‘중’, ‘하’인 집단보다 높았다. 따라서 한국어 실력의 수준이 높을수록 직업기초능력이 높아지는 것으로 보아 여성결혼이민자들에게 한국어 실력은 취업역량 강화를 위한 필수조건이기 때문에 이에 대한 체계적인 교육이 필요함을 시사하고 있다.

<Table 9> Difference of Key competencies by Korean language competence

Domain	Korean language competence	N	Mean	SD	F(p)	Scheffe
Competencies of communication	Low(a)	12	2.54	.62	60.592* (.000)	a < b, c b < c
	Middle(b)	83	3.13	.47		
	High(c)	51	3.92	.47		
	Total	146	3.36	.65		
Competencies of numeracy	Low(a)	12	2.83	1.05	10.389* (.000)	a, b < c
	Middle(b)	83	3.21	.85		
	High(c)	51	3.81	.82		
	Total	146	3.39	.91		
Competencies of problem solving	Low(a)	12	3.08	.98	12.074* (.000)	a, b < c
	Middle(b)	83	3.21	.56		
	High(c)	51	3.72	.62		
	Total	146	3.38	.67		
Competencies of self-management & development	Low(a)	12	3.60	.54	17.295* (.000)	a, b < c
	Middle(b)	83	3.71	.53		
	High(c)	51	4.23	.52		
	Total	146	3.88	.58		
Competencies of resource use	Low(a)	12	2.90	.92	12.896* (.000)	a, b < c
	Middle(b)	83	3.28	.70		
	High(c)	51	3.81	.65		
	Total	146	3.44	.76		
Competencies of human relationship	Low(a)	12	3.33	.84	7.298* (.001)	a, b < c
	Middle(b)	83	3.53	.59		
	High(c)	51	3.88	.54		
	Total	146	3.63	.62		

취업한 여성결혼이민자들의 직업기초능력에 관한 연구

Competencies of information	Low(a)	12	2.75	1.21	13.497* (.000)	a, b < c
	Middle(b)	83	3.12	.78		
	High(c)	51	3.79	.79		
	Total	146	3.33	.89		
Competencies of technology	Low(a)	12	2.88	.96	12.484* (.000)	a, b < c
	Middle(b)	83	3.39	.65		
	High(c)	51	3.85	.69		
	Total	146	3.51	.75		
Competencies of organization skills	Low(a)	12	3.15	.54	19.948* (.000)	a, b < c
	Middle(b)	83	3.36	.56		
	High(c)	51	3.95	.60		
	Total	146	3.55	.65		

*p < .05

마. 직업별에 따른 직업기초능력 차이

취업한 여성결혼이민자의 직업기초능력이 직업에 따라 차이가 있는지를 분석한 결과는 <Table 10> 과 같다. 직업별에 따른 직업기초능력 차이는 9개 영역 모두에서 통계적으로 유의수준 .05 수준에서 집단 간에 유의미한 차이가 있었다.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확인된 요인에 대한 Scheffe 사후검증을 실시한 결과, 의사소통능력은 ‘교육·사무종사자’ 집단이 ‘서비스·판매종사자’와 ‘기타(단순노무자 등)’의 집단보다 높았으며, ‘서비스·판매종사자’ 집단은 ‘기타(단순노무자 등)’

집단보다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F=6.284, p<.05). 수리능력, 자원활용능력, 대인관계능력, 정보능력 영역에서는 ‘교육·사무종사자’ 집단이 ‘서비스·판매종사자’와 ‘기타(단순노무자 등)’의 집단보다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자기관리 및 개발능력, 조직이해능력 영역에서는 ‘서비스·판매종사자’ 집단은 ‘기타(단순노무자 등)’ 집단보다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세 집단 중에서 ‘교육·사무종사자’ 집단이 의사소통능력, 수리능력, 자원활용능력, 대인관계능력, 정보능력이 높음을 확인하였다.

<Table 10> Difference of Key competencies by job

Domain	Job	N	Mean	SD	F(p)	Scheffe
Competencies of communication	Service · Sales(a)	33	3.15	.73	6.284* (.002)	a > c b > a, c
	Education · Office job(b)	91	3.51	.58		
	Others(simple laborers)(C)	22	3.09	.69		
	Total	146	3.36	.65		
Competencies of numeracy	Service · Sales(a)	33	3.03	.85	8.578* (.000)	b > a, c
	Education · Office job(b)	91	3.62	.86		
	Others(simple laborers)(C)	22	2.98	.92		
	Total	146	3.39	.91		
Competencies of problem solving	Service · Sales(a)	33	3.17	.63	3.721* (.027)	-
	Education · Office job(b)	91	3.49	.67		
	Others(simple laborers)(C)	22	3.23	.63		
	Total	146	3.38	.67		
Competencies of self-management & development	Service · Sales(a)	33	3.78	.50	11.746* (.000)	b > c
	Education · Office job(b)	91	4.03	.57		
	Others(simple laborers)(C)	22	3.43	.49		
	Total	146	3.88	.58		

Competencies of resource use	Service · Sales(a)	33	3.19	.86	6.692* (.002)	b > a, c
	Education · Office job(b)	91	3.61	.71		
	Others(simple laborers)(C)	22	3.10	.60		
	Total	146	3.44	.76		
Competencies of human relationship	Service · Sales(a)	33	3.45	.78	6.052* (.003)	b > a, c
	Education · Office job(b)	91	3.77	.57		
	Others(simple laborers)(C)	22	3.35	.39		
	Total	146	3.63	.62		
Competencies of information	Service · Sales(a)	33	2.88	.93	18.236* (.000)	b > a, c
	Education · Office job(b)	91	3.63	.74		
	Others(simple laborers)(C)	22	2.72	.85		
	Total	146	3.33	.89		
Competencies of technology	Service · Sales(a)	33	3.30	.82	4.362* (.014)	-
	Education · Office job(b)	91	3.65	.71		
	Others(simple laborers)(C)	22	3.25	.65		
	Total	146	3.51	.75		
Competencies of organization skills	Service · Sales(a)	33	3.37	.72	5.976* (.003)	b > c
	Education · Office job(b)	91	3.68	.61		
	Others(simple laborers)(C)	22	3.25	.52		
	Total	146	3.55	.65		

*p < .05

바. 본국 직업유무에 따른 직업기초능력 차이
취업한 여성결혼이민자의 직업기초능력이 본국
의 직업유무에 따라 차이가 있는지를 T검증하여
분석한 결과는 <Table 11> 과 같다. 9개 직업기
초능력 영역 중에서 5개 영역인 의사소통능력,
수리능력, 문제해결능력, 자원활용능력, 조직이해

능력에서 통계적으로 유의수준 .05에서 집단 간
에 유의미한 차이가 있었다. 따라서 본국에서 취
업한 경험이 있는 여성결혼이민자들이 취업경험
이 없는 여성결혼이민자들보다 직업기초능력이
높음을 알 수 있었다.

<Table 11> Difference of Key competencies by the employment status in native country

Domain	The employment status in native country	N	Mean	SD	T(p)
Competencies of communication	Yes(a)	107	3.50	.66	4.666* (.000)
	No(b)	39	3.00	.45	
Competencies of numeracy	Yes(a)	107	3.53	.91	3.172* (.002)
	No(b)	39	3.01	.80	
Competencies of problem solving	Yes(a)	107	3.46	.73	2.391* (.018)
	No(b)	39	3.16	.43	
Competencies of self-management & development	Yes(a)	107	3.92	.60	1.503 (.135)
	No(b)	39	3.76	.51	
Competencies of resource use	Yes(a)	107	3.52	.82	2.325* (.021)
	No(b)	39	3.20	.48	
Competencies of human relationship	Yes(a)	107	3.69	.64	1.672 (.097)
	No(b)	39	3.49	.56	
Competencies of information	Yes(a)	107	3.40	.90	1.782 (.077)
	No(b)	39	3.11	.85	

Competencies of technology	Yes(a)	107	3.56	.78	1.358 (.177)
	No(b)	39	3.37	.64	
Competencies of organization skills	Yes(a)	107	3.66	.67	3.738* (.000)
	No(b)	39	3.23	.43	

*p <.05

V. 결론 및 제언

본 연구는 부산·창원·김해 지역의 행정구역동에 거주하는 취업한 여성결혼이민자들을 대상으로 연령별, 한국거주 기간별, 최종학력별, 한국어 실력별, 직업별, 본국 직업유무별에 따라 직업기초능력 차이가 어떠한지를 설문조사하여 분석한 결과, 다음과 같은 결론을 도출하였다.

첫째, 취업한 여성결혼이민자들의 연령에 따른 직업기초능력은 9개 영역 모두에서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없었다. 그러나 의사소통능력에서 ‘29세 이하’ 집단은 평균 3.21점, ‘30~39세 이하’ 집단은 평균 3.48점, ‘40세 이상’ 집단은 평균 3.24점으로 나타났다. ‘30~39세 이하’ 집단이 의사소통능력이 가장 높은 것으로 보이나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았다. 이것은 적은 표본수와 눈덩이 표집방법을 이용한 비확률적 표본추출 문제 등과 같이 본 연구대상자의 표집특성이 일부 반영되었을 것으로 판단되므로 사후 반복연구를 통한 검증이 필요하다고 본다.

둘째, 취업한 여성결혼이민자들의 한국거주 기간에 따른 직업기초능력에서는 의사소통능력 영역 1개에서만 유의미한 차이를 보였다. 이러한 결과는 우리나라 다문화정책이 2006년부터 본격화되어 2008년 이후 다문화가족지원센터와 여성새로일하기센터 등을 중심으로 한국어교육, 한국문화이해, 직업훈련 및 취업교육, 취업알선 등 다양한 서비스가 제공되고 있기 때문에 최근 들어 이주해온 나이 어린 여성결혼이민자들에게 직업능력개발을 위한 기회제공이 이전 여성결혼이민자들보다 많이 부여된 것과 관련이 있다고 본다.

셋째, 취업한 여성결혼이민자들의 최종학력에 따른 직업기초능력은 문제해결능력을 제외한 8개

영역에서 유의미한 차이가 있었다. 이는 기존연구에서 언급했듯이(임언, 2006; 이동명, 2008, 양인숙 외 2010; 양정은, 2011; 이규용 외 2011), 최종학력이 높을수록 직업기초능력이 높기 때문에 노동시장에서의 취업확률은 그만큼 높아짐과 더불어 한국사회가 학벌사회임을 고려해볼 때 여성결혼이민자들의 주요 인적자본인 최종학력 향상을 통해 직업기초능력을 제고해야 함을 시사하고 있다.

넷째, 취업한 여성결혼이민자들의 한국어실력에 따른 직업기초능력은 9개 영역, 의사소통능력, 수리능력, 문제해결능력, 자기관리 및 개발능력, 자원활용능력, 대인관계능력, 정보능력, 기술능력, 조직이해능력에서 유의미한 차이를 보였다. 한국어 실력이 우수할수록 직업기초능력이 높아짐을 알 수 있었다. 여성결혼이민자들의 한국어 실력은 9개 직업기초능력 영역 모두에서 유의한 차이를 보이는 것으로 보아 이들의 노동시장 진입을 위한 취업에 핵심요인으로 작용하고 있음을 알 수 있었으며, 특히 보다 나은 일자리에서 일하기를 희망하는 여성결혼이민자들은 한국어 실력을 향상시켜야 함을 시사하고 있다.

다섯째, 취업한 여성결혼이민자들의 직업별에 따른 직업기초능력 9개 하위영역인 의사소통능력, 수리능력, 문제해결능력, 자기관리 및 개발능력, 자원활용능력, 대인관계능력, 정보능력, 기술능력, 조직이해능력에서 유의미한 차이를 보였다. ‘교육·사무종사자’ 집단이 ‘서비스·판매종사자’ 집단과 ‘기타(단순노무자 등)’의 집단보다 문제해결능력, 기술능력을 제외한 7개 영역에서 직업기초능력이 우수함을 알 수 있었다. 이는 ‘교육·사무종사자’ 집단에 속하는 다문화가족지원센터 등의 통번역사에 대한 일반적인 자격요건을 보면 한국

체류기간은 2년 이상이고, 학력은 고졸이상이며, 한국어와 출신국 언어로 통번역이 가능하고, 한국어능력시험 4급수준 이상을 소지하고 있어야 한다. 이를 통해서 알 수 있듯이 여성결혼이민자들이 보다 안정적이고 괜찮은 직장에 취업하기 위해서는 인적자본이 우수하여야 함을 보여주고 있다.

여섯째, 취업한 여성결혼이민자들의 본국 직업 유무에 따른 직업기초능력은 의사소통능력, 수리능력, 문제해결능력, 자원활용능력, 조직이해능력의 5개 영역에서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있었다. 응답자들 중에서 본국에서 취업한 경험이 있는 여성결혼이민자들이 73.3%(107명)를 차지하는 것으로 보아 본국에서의 취업경험이 한국에서도 취업욕구를 높이고, 취업역량을 강화하게 하는 기제로 작용하여 취업으로 연계되고 있음을 짐작할 수 있었다.

일곱째, 취업한 여성결혼이민자들의 9개 직업기초능력 영역에 대한 전체 평균은 3.50점으로 나타났다. 이 중에서 자기관리 및 개발능력(3.89점)과 대인관계능력(3.63점) 순으로 높게 나타났는데, 이는 여성결혼이민자들이 취업을 위해 자기관리 및 개발능력과 대인관계능력에 많은 관심을 가지고 노력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그러나 정보능력(3.33점)과 의사소통능력(3.36점), 문제해결능력(3.38점) 순으로 낮게 나타난 것으로 보아 이에 대한 직업능력개발이 요구되고 있음을 시사하고 있다.

마지막으로, 본 연구결과를 통해 여성결혼이민자들이 한국사회에서 취업을 하는데 있어 한국어 실력 및 직업, 최종학력, 본국 취업유무 변인 순으로 밀접한 관련이 있음을 확인하였다. 따라서 여성결혼이민자들이 한국사회에서 취업을 하는데 있어 이들이 보유하고 있는 인적자본이 중요한 역할을 하므로 개인역량 개발을 위한 노력이 필요함을 시사하고 있다.

이상의 연구결과를 토대로 다음과 같은 제언을 하고자 한다.

첫째, 여성결혼이민자들의 직업기초능력 제고를 위해서는 정부 및 지자체, 평생교육기관, 일터가 함께 협력해야 한다. 한국사회가 빠르게 다문화사회로 이행되고 있기 때문에 사회통합 차원에서 여성결혼이민자들의 취업은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될 것이다. 따라서 정부 및 지자체 차원에서는 장기적인 시각을 가지고 여성결혼이민자들이 살아오면서 축적해온 다양한 삶과 학습의 경험을 살릴 수 있는 정책 및 일자리 창출을 위해 관심과 노력을 기울여야 할 것이다. 또한 평생교육기관에서는 취업을 희망하는 여성결혼이민자들의 취업역량을 강화시키고, 이들의 특성과 현실을 고려한 직업교육훈련을 실시해야 할 것이다. 본 연구결과, 직업기초능력 9개 영역 중에서 평균 점수가 낮게 나타난 정보능력, 의사소통능력, 문제해결능력을 향상시킬 수 있도록 수준별 프로그램개발 및 운영이 요구된다. 대부분의 일터에서 컴퓨터활용 정보능력은 업무수행의 기본이 되고 있고, 또한 문제해결능력은 여성결혼이민자들이 가정, 사회, 일터에서 부딪치는 문제들을 원만하게 해결하기 위해서는 이에 대한 능력강화가 절실히 요구된다. 아울러 여성결혼이민자들의 직업교육훈련 참여가 실제적인 노동시장 참여로 연계될 수 있도록 취업처 발굴에도 노력해야 할 것이다. 마지막으로 일터에서도 가능한 한 지속적인 연수 및 교육을 통해 다양한 영역의 직업기초능력을 유지 및 제고시킬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할 것이다.

셋째, 여성결혼이민자들의 높은 취업 문턱에 학력은 중요한 요소로 작용하고 있기 때문에 이를 향상시키는 노력이 필요하다. 따라서 다문화가족지원센터 등과 같은 평생교육기관에서는 여성결혼이민자들에게 단계적으로 한국어교육을 실시하고, 이를 토대로 한국어능력검정 자격증을 취득하게 하거나 초·중·고 검정고시를 통해 졸업장을 취득하게 하고, 더 나아가 대학진학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지원할 필요가 있다.

넷째, 대학들은 여성결혼이민자들이 대학진학

을 통해 지역사회에 기여할 수 있는 전문 인력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대학문호를 개방하고 다양한 장학금 혜택을 제공할 필요가 있다. 여성결혼이민자들이 고등교육을 통해 지속적인 자기계발과 직업기초능력을 향상시키고, 자아실현을 도모하고, 국가경쟁력을 창출할 수 있는 우수한 인적 자원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지원하여야 할 것이다.

다섯째, 여성결혼이민자 스스로도 평생학습의 필요성을 인식하고 자발적이고 주도적으로 학습에 참여하여 직업기초능력을 함양하도록 끊임없이 노력하여야 할 것이다. 따라서 여성결혼이민자들이 자신의 삶에 책임을 지는 성숙한 성인으로서, 능동적인 삶의 주체로서 직업세계에서 요구하는 취업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끊임없이 배움을 실천하는 평생학습인으로 거듭나야 할 것이다.

여섯째, 다문화사회의 빠른 확산 속에서 사회통합을 이루기 위해서는 전 국민이 함께 노력해야 한다. 사회구성원들은 나와 다름에 대한 차별과 편견에서 벗어나서 나와 다름에 대한 차이와 다양성을 인정할 수 있는 의식전환이 선행되어야 할 것이다. 이러한 노력의 한 일환으로 다문화가정 자녀 및 여성결혼이민자들을 대상으로 재능기부 자원봉사활동을 하는 것도 현장에서의 직접적인 만남과 경험 공유를 통해 서로를 더 잘 이해하는 좋은 배움의 기회가 될 것으로 본다.

본 연구는 취업한 여성결혼이민자의 직업기초능력을 측정함에 있어 직업기초능력에 관한 국민 공통 기본교육과정 분석연구에서 추출된 직업기초능력 9개 영역을 토대로 하여 부산·창원·김해 지역의 동에 거주하는 취업한 여성결혼이민자에 한정하여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다. 또한 이 연구는 취업자 현황과약이 어려운 관계로 응답자의 직종이 교육 및 사무 종사자에 62%나 치중되어 있어 다양한 직종에 종사하는 여성결혼이민자들을 대상으로 하지 못했기 때문에 표본의 대표성에 따른 일반화와 자기평가 방식 조사에 따른 오

류가능성에 한계점을 가진다.

이에 향후 후속연구에서는 여성결혼이민자들의 다양한 사회문화적 배경을 반영한 체계적인 측정 도구를 개발하여 보다 다양한 지역을 대상으로, 그리고 보다 다양한 직종을 대상으로 취업한 여성결혼이민자들 뿐만 아니라 취업을 희망하는 여성결혼이민자들의 직업기초능력에 대한 연구가 이루어지기를 기대한다. 그리고 여성결혼이민자들이 직업기초능력 강화를 위해 어떠한 노력을 하였는지를 심층적으로 이해하기 위한 질적 연구도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Reference

- Choi, Hyun-Wook · Hwang, Bo-Myung(2009). A Effects of Mother's Korean Abilities on their Children's Korean Abilities in Multi-cultural Family, Research Institute of the Korean Special Education 10(4), 315~329.
- Choi, Seung-Ho et. al.(2010). A Human Resources Study on Women Immigrated through Marriage in Province Chung-Buk, CRI.
- Hong, Soo-Nam · Lee, Sang-Eun.(2011). Qualitative research on acquiring makeup license: international marriage migrant women, Journal of the Korean Society of Beauty and Art 12(2), 63~80.
- Im, Eon(2004). A Study on the Key Competencies of Adult: For OECD ALL project, KRIVET.
- Im, Eon(2006). Korean Adult Skills and Related Factors, Journal of Vocational Education & Training 9(1), 1~24.
- Ministry of Security and Public Administration(2012). present condition onf the alien resident of local autonomous entity in 2012. Ministry of Security and Public Administration.
- Moon, So-Jung et al.(2009). Woman & Job, Sigmappress.
- Jang, Seo-Young et. al.(2009). The basic research for working support program development of The married female immigrants, KEIS.
- Jung, Chul-Young et. al.(1998). Analysis of The National Common Basic Curriculum about Key competencies, Korea Research Institute for Vocational Education and Training, KRIVET.

- Kim, Ahn-Kook(2007). The Formative Factors and the Economic Effects of the Basic Job Skills in Korea, The Journal of Labor Economic 30(1), 85~108.
- Kim, Byung-Sook et al.(2010). The Development and Effects of Vocational Adjustment Program for Marriage Immigrant Women, The Korean Journal of Woman Psychology 15(2), 235~258.
- Kim, Lee-Sun(2006). Political Subject for Experience of Cultural Struggle Experience and Improving Communication of Married Immigrant Women, KWDI.
- Kim, O-Nam(2008). Understanding about Family of international marriage immigrants, Jipmoondang.
- Kim, Ok-Youb(2012). Married immigrant women living in Incheon and the Determinants employment, Master Dissertation, Sookkyung Women's University, (in Korean).
- Kim, Si-Young(2010). Study on the Factors Affecting the Employment of Female Married Immigrants, Master Dissertation, Pusan National University, (in Korean).
- Kim, Sung-Gwon et al.(2010). Nationwide Multicultural Families survey of 2009, KIHASA.
- Kim, Young-Ha et al.(2008). Program Manual Development for Multicultural Education English Specialist Cultivation of Marriage Women Immigrants, DGI.
- Ko, Hye-won et al.(2010). Employment assistance measures for female marriage immigrants: Focused on language and cultural resources, KWDI.
- Kyung, Mee-Kwon(2007). A Study on perspective of Educational Culture in Multicultural Society with Life Experience of Immigrant Married Women, Ph.D. Dissertation, Dong-A University, (in Korean).
- Ministry of Security and Public Administration(2012). present condition onf the alien resident of local autonomous entity in 2012. Ministry of Security and Public Administration.
- Lee, Dong-Myung(2008). Effect of Formal and Informal Learning in Organization on Employee's Basic Skill, Ordo economics journal 11(1), 105~126.
- Lee, Eun-Hee · Lee, Eun-Mi(2012). A Study on Eco-systemic Factors that Effect the Married Immigrant Women's Employment, Journal of the Korea Academia-Industrial cooperation Society 13(1), 66~72.
- Lee, Gyu-Yong(2011). Family of the Married Immigrants & Unifying for Labor Market, KLI.
- Lee, Jong-Sung · Jung, Hyang-Jin(2002). The renal ability for the Key Competencies of Vocational High School & Program Development & Application Plan, KRIVET.
- Lee, Moo-Geun et. al.(1997). Policy Research for Certification System Introduction of Occupational Ability, MOE.
- Park, Kang-Koo(2012). Study on Married Immigrant's Needs for Welfare and Satisfaction for Marriage. Ph.D. Dissertation, Dong-A University, (in Korean).
- Seo, Choug-Nam(2010). Theory and Practice of Multicultural Education, Haggisa.
- Seo, Seung-Jae(2012). A Suggest on a vocational education for the multicultural family: Focusing on the Female Migrants by Marriage in Gangdong-gu Seoul, Master Dissertation, Sangmyung University, (in Korean).
- Seol, Dong-Hun et al.(2005). Foreign wives' life in Korea: focusing on the policy of welfare and health, MW.
- Shim, In-Seon(2010). Employment and vocational training for migrants and policy issues, Health and welfare policy forum 165, 36~45.
- Yang, Gyung-Eun(2011). Research on Employment of the Married Female Immigrant Who Live in Korea, Master Dissertation, Seoul National University, (in Korean).
- Yang, In-Sung et al.(2010). Economic Activities and Political Subject of the Married Female Immigrant, KWDI.

-
- 논문접수일 : 2013년 07월 22일
 - 심사완료일 : 1차 - 2013년 08월 08일
 - 게재확정일 : 2013년 08월 15일